



추석 가정예배 순서



개 식 사 **담 당 자**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다 같 이**

찬 송 **405장** **다 같 이**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 도 **담 당 자**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2022년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도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돌리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베드로전서 1:3-5, 21** **담 당 자**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말 씀 **믿음과 행함** **담 당 자**

사도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아픈 세상에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 시들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세상살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때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소유한 위로를 분명히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약속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불안하지만, 말씀의 약속에서 평안이 솟아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복음과 소망이 있으니, 그에 따르는 합당한 반응이 바로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은혜를 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참으로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서 마땅히 어떤 행실이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은 묻습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영생의 복락을 지금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리라! 그리스도인은 삶에는, 이런 신앙고백의 몸부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입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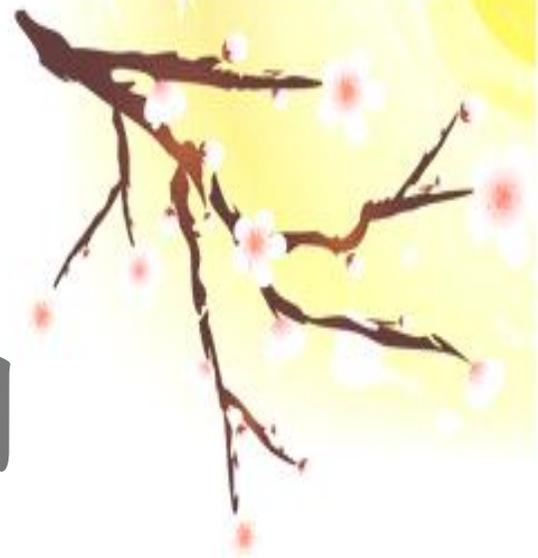
오늘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시들지 않는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기를 소원합니다.

찬 송 559 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 같이

'2022 추석 가정예배



다함예수교총회
거제소망교회
GEOJE SOMANG PRESBYTERIAN CHURCH